

안양천 살리기와 친수공간



김 선 희 ▶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shkim@krihs.re.kr

1. 도시하천, 도심재생과 문화의 중심에 서다.

도시민에게 가장 쾌적성 높은 공간은 아마 ‘물이 있는 공간’ 즉 ‘친수공간’ 일 것이다. 최근 서울시에서 청계천 고가다리를 걷어내고 ‘하천’을 복원하면서 ‘친수공간’에 대한 관심과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도시의 경쟁력과 매력이 높아지고 창조적인 인재들이 서울로 몰려오고 있다고 홍보가 대단하다. 이에 하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하고, 친수공간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대사업이 전국 160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앞다투어 경쟁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오염되어 방치되어 있던 도시하천 수질이 개선되고 생태계가 회복되면서, 하천이 도심의 새로운 오픈스페이스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하천을 전면으로 하는 워터프론트(waterfront)에 사람들이 모이면서, 상가가 들어서고, 활력있는 문화의 중심지가 되어 가고 있다. 이제 하천은 더 이상 지역내 우수와 오수를 배제하는 도시인프라가 아니며, 도시생태계의 건전성과 순환성을 확보하는 그린웨이이자, 지역사회의 문화와 매력을 담아내는 오픈스페이스다. 수변에 형성된 주거지는 다른 지역보다 주택가치가 높아지는 살기좋은 지역이 되고 있다.

현재 서울시는 ‘한강 르네상스 구상’을 통해, 대구시는 ‘금호강 살리기’를 통해, 울산시는 ‘태화강 살

리기 신화창조’를 통해, 청주는 ‘무심천 살리기’를 통해, 안양시는 ‘안양천살리기 마스터플랜’ 등을 통해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하천의 기능을 새롭게 창조해 가고 있다.

2. 도시 오픈스페이스로서의 수변공간, 하천

도시 속에 ‘수변’ 혹은 ‘친수공간’은 그곳에 사는 시민들에 ‘오아시스’ 같은 장소이다. 지역주민들과 교류하고 아이들과 물놀이하며, 자전거와 산책을 즐기는 오픈스페이스다. 또한 하천과 함께 지역의 전설과 축제, 관광자원이 수변을 중심으로 형성되면서 지역을 상징하는 지역 고유의 문화양성의 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인간과 수변이 상호 만나 관계를 맺는 풍요로운 생태계이다.

그러나 1960년대이후 도시화와 산업화 등 압축경제성장과정에서 하천은 우수와 오수를 빠르게 배제시키는 콘크리트 호안으로 둘러싼 직선화된 수리시설, 하수도 역할을 하게 된다. 수질은 악화되어 악취가 진동하고, 수생태계는 파괴되어 거주환경의 질을 떨어뜨리게 되자, 하천은 복개되고 매립되어 주민들로부터 철저히 외면 받을 수 밖에 없었다.

2000년 들어서면서 도시화에 따른 제반 도시환경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는 ‘물과 녹지’를 확충하는 정책을 펼치면서 다시 하천이 제 모습을 찾아가고 있다. 하천의 치수, 이수 기능외에 환경기능, 친수기능이 중시되고 있다.

‘친수’(親水)는 ‘오감을 통한 물과의 접촉에 의해 인간의 심리·생리현상이 보다 효과적으로 되어가는 것’으로 정의되고, 이를 전제로 ‘사람들의 친수성을

찾는 수변공간' 과 '수변공간에서의 인간활동의 총칭' 을 친수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3. 안양천 살리기 기본계획 수립과 집행, 그 7년의 성과

“천연기념물 원앙새 한쌍이 날아오고, 백로와 왜가리는 버들치 잡이에 바쁘다. 방과후 아이들은 안양천이 놀이터이자 친구가 된다. 아침저녁엔 산책하고 조깅하는 사람들로 안양천이 붐빈다. 안양천변에는 열리는 콘서트에 인순이가 열창하고, 침팬지의 어머니 제인구달 박사가 안양천을 다녀갔다. 일본 하천협회 사람들은 ‘꿈이 있는 안양천’ 을 칭찬한다”

지난 7년간 2,200억원이 투자된 안양천살리기의 성과이다. 안양천의 수질은 현재 탄천과 양재천보다 깨끗하다. 안양천에 서식하는 어류는 15종, 조류는 47종으로 어느 도시하천보다 생태계의 다양성이 풍부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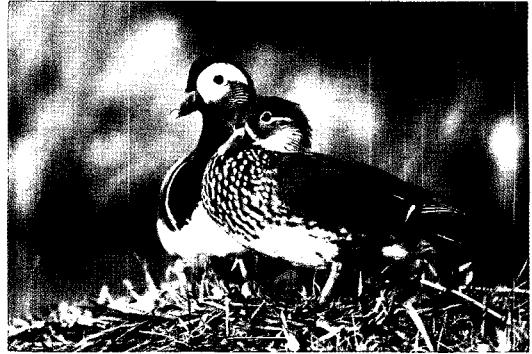


그림 1. 학의천 원앙

오염하천의 대명사로 불리우던 안양천은 2000년 ‘안양천 살리기 기본계획’ 을 통해 ‘주민이 즐겨찾는 즐거운 안양천’ 으로 변화되기 시작한다. 안양천 살리기 기본계획 수립은 기존 민과 기술자 주도의 하천정비사업과 달리 민·관·학이 함께 참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계획과 집행으로 수질을 개선하고 학의천, 안양천 등 구간별로 친수공간을 회복한 대표적인 모범 사례이다. 시장직속의 ‘안양천살리기 기획단’ 을 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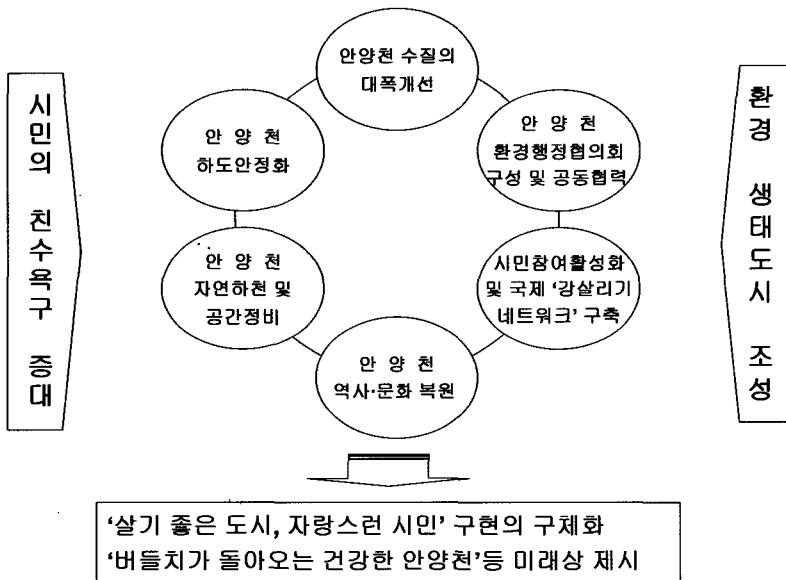


그림 2. 안양천 살리기 기본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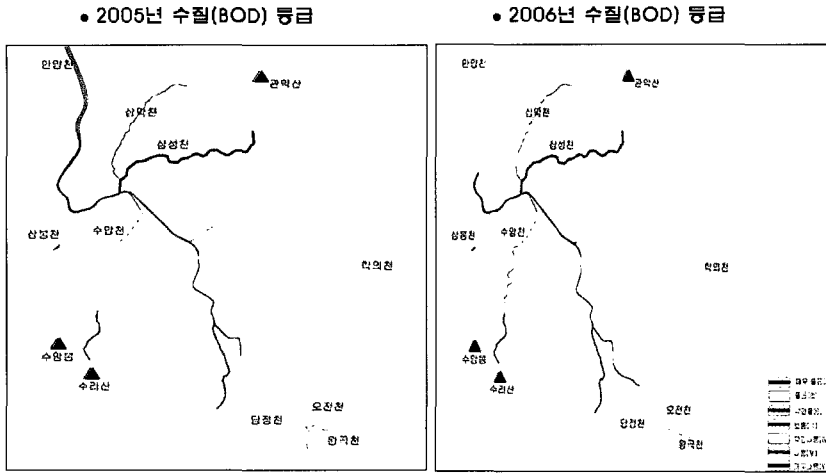


그림 3. 연도별 수질변화 비교(자료: 안양시, 2006, 안양천 모니터링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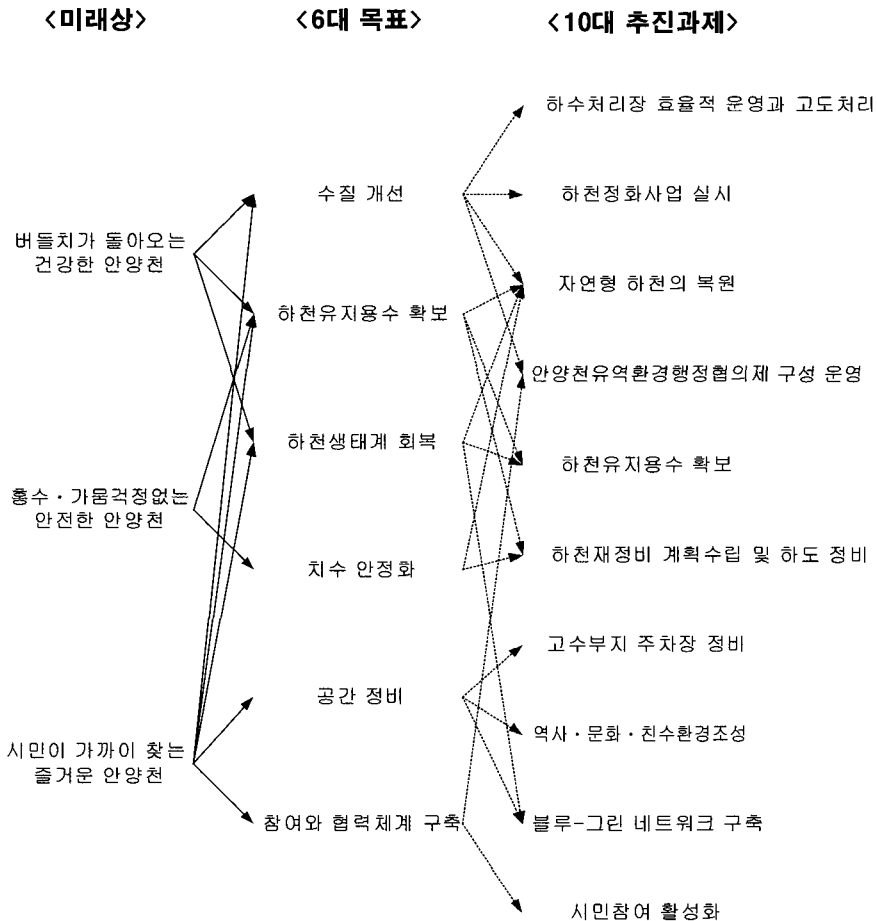


그림 4. 안양천 살리기의 목표와 과제 예시

성·운영하고, 하천살리기의 주요인인 치수안전 수리·수문기술(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간계획과 시민참여(국토연구원), 수질보전(안양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생태(경원대학교) 등 학제간 통합적인 접근(interdisciplinary holistic approach)을 통해 안양천을 도심의 친수공간을 새롭게 창출해 가고 있다.

안양천수질정화시설설치('02.10), 학의천·안양천·수암천·삼성천 자연형하천조성사업('03.1~'07.2)을 단계별로 추진해오면서, 이제 안양천은 시민이 즐겨찾은 수변공간이 되었다.

4. 하천 그 자체가 지역박물관

“개울을 건너가면 작은 마을이 있고, 낮은 고개를 넘어가면 또 마을이 있고, 산자락을 돌아오면 또 마을이다. 고개마다, 웅덩이마다, 산모퉁이마다, 개울물이 돌아가는 물굽이마다 이름이 있다. 그 마을들은 모두 동일한 생산의 조건과 삶의 질감을 공유하는 공동체적 문화의 바탕을 갖는 마을들이지만 마을마다 산세가 다르고 좌향이 다르고 물의 흐름이 달라서 이 작은 마을들은 저마다의 독자성으로 자연 앞에서 대응하다” 작가 김훈의 ‘자전거 여행’에 나오는 글이다. 이처럼 하천은 작가의 관찰에서도 보여지듯 지역 생활과 지역문화·역사와 함께 흐른다.

5년전(2002년 11월 23일~25일) 일본 후쿠오카(福岡) 구루메(久留米) 대학에서 열린 제 9회 전국수환경교류회에 참석하여 유역관리를 체험한 적이 있다. 일본 전국각지에서 하천에 관심을 갖고 제각기 다양한 하천보전활동을 벌이는 사람들-전직 건설성 공무원, 대학교수, 문학인, 공학자, 생태전문가, 주부, 농부, 환경단체 회원 등-이 이 날 구루메대학에 모여, “水·사람·交流: 사람은 마음을 넘고, 물은 지구를 돈다”라는 주제하에 심포지움, 하천살리기 사례경연대회 등을 벌인바 있다. 심포지움에서는 댐방류량 배분 문제에서 부터, 시민의 참여하는 하천만들기에 이

르기 까지 무겁고 가벼운 다양한 주제 등이 다양한 입장에서 논의되고 각각의 정보와 경험을 교환하였다. 행사 마지막날엔 치쿠고강(筑後川) 상·중·하류 필드투어가 있었는데, 치쿠고유역을 사랑하는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비영리단체인 치쿠고강유역연구구락부회 회원들의 안내로 상류지역 댐, 산촌, 도자기마을, 물박물관, 자연보전센터 등을 답사할 수 있었다. 하류팀은 배를 타고 有名海 干潟地, 취수시설들을 견학하였다. 치쿠고강유역연구구락부회는 「筑後川 통째가 박물관」를 2001년 6월 발족하고 치쿠고강의 상류부터 하류까지의 자연과 생태계, 맛과 멋, 문화, 산업 등을 체험·교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유역의 지속가능한 수자원관리와 지역발전을 도모해 오고 있는 것이다.

하천은 사람들의 인식과 교류를 통해 더욱 더 그 가치와 기능을 심화시킬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본의 “水·사람·交流”의 수환경교류 프로그램과 같은 행사를 통해 하천의 기능과 역할을 재인식해 보는 기회를 마련해 볼 필요가 있다. 하천관리는 전문가의 전유물이 아니라 하천과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의 참여와 협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천은 그 자체가 지역박물관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김선희, 2001.11, 맑은 물 보전을 위한 유역통합관리와 협력, 한강지킴이운동본부
- 김훈, 2004, 자전거여행 경기도편, 생각의 나무
- 안양시, 2000. 4, 안양천살리기 기본계획
- 안양시, 2007.3, 2006년 안양천 모니터링 연구
- 전국수환경교류회, 2002. 11 “水·사람·交流: 사람은 마음을 넘고, 물은 지구를 돈다”
- 畔柳 昭雄 등, 1999, 都市の水邊と人間活動
- <http://www.chikugoriver-museum.net> 